



부평구 주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 놀이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99-1번지, 고층 아파트들이 뽁뽁이 들어선 이곳에 나지막한 쉼터가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책임있는사회만들기운동이 문화방송(MBC)의 한 프로그램과 함께 만든 아홉 번째 작품 '부평기적의도서관'이다.

글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지난 3월 10일 첫 돌을 맞은 '부평기적의도서관'은 그동안 성원해준 지역민들을 위해 스스로 생일선물을 마련했다. 도서관들과 어울림 공연장, 쉼터 등 도서관 곳곳에서 소박한 생일잔치를 벌인 후 0세부터 13세까지로 제한했던 대출대상을 개관 1주년 기념해 부평구민이면 누구나 어린이도서를 빌려갈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한다

민과 관(시민단체와 부평구)이 협력해 설립, 운영해 오고 있는 이곳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정당한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기적의도서관 취지가 담긴 곳이다. 그래서인지 시설물에서부터 딱딱하고 이름뿐인 도서관, 공부방이 아닌 온돌 마루가 깔려있는 아늑한 서가는 흡사 안방 같은 친근함이 있다. 동네 사랑방에 아이들이 용기종기 모여 신나게 놀듯 책을 볼 수 있다.

"우리 도서관은 아이들의 모습이 자유스러워요. 좋은 책을 만나게 하기 위해 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개관 초기에는 조금 떠들어도 된다는 선입견들이 있었는지 질서가 잡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아이들에게는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서관은 책이 평생 친구 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일 년간 도서관을 보살펴 온 최지혜 관장은 이제 첫돌을 맞은 도서관 분위기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한 시간'임을 알렸다. 아이들이 즐겁게 드나드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도서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의 무분별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아이들 세상 속으로'라는 부모교육을 시작했다. 한 달에 한번, 셋째 일요일에는 부모들도 동화책을 보면서 동시, 동화 작가들을 만나 어린이문화가 무엇인지를 교육받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참여율이 예상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도서관은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한다"는 신념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몸의 소리를 들으며 책과 소통하는 곳”

10년 이상 어린이도서관에 몸담아 온 최지혜 관장은 지난 2006년 3월 도서관 개관과 함께 ‘기적의도서관’의 운영지휘를 맡아오고 있다.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지역도서관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제공하면서 힘들고도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다.



“어머니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들떠서 좋아하겠느냐고요, 일 년을 돌아보니 그래도 우리 도서관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적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지혜 관장의 도서관 운영 신념은 ‘기본을 지키자’이다. 그는 ‘문화센터’로 변하려는 최근의 도서관 문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생겨나는 분위기는 반기지 만 현실은 정작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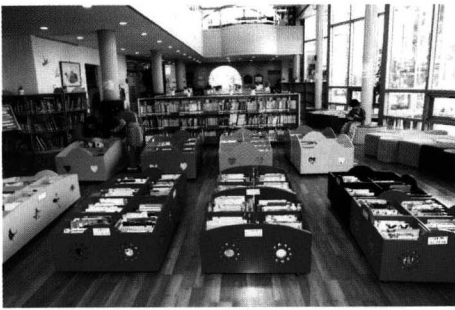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실상 위험한 일입니다. 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래에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있는 곳, 그것이 평생 학습의 장소가 되는 것 아닐까요.”

최근 자생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들이 분주하게 개발하고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자칫 어린이들이 책과 무관한 내용을 배우는 학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변질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인 것이다.

“도서관은 일일 이용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오던지 책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이 마음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면 그 아이가 친구를 데려오거든요.”

최 관장은 기적의 도서관을 통해 이뤄야 할 도서관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점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스스로 책과 접근할 수 있도록, 정말 목이 말라 100% 흡수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문화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즐거운 도서관

인구 57만이 넘는 부평구에 어린이를 위한 온전한 도서관이라면 ‘부평 기적의도서관’이 거의 유일하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설립시기부터 지워진 셈이다. 방학이면 일 이용객이 3,000명이 넘고, 학기 중에도 800명을 육박한다. 주말에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모두 몰려와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는다. 그래서인지 대지 400평, 건평 300평인 도서관 건물은 넉넉해 보이는 공간임에도 늘 북적댄다. 덕분에 최지혜 관장을 포함한 여섯 명의 도서관인들은 눈코 뜰 새가 없다. 110 여명의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고학년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사서’들이 없었다면 일 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만큼 성장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최 관장의 말이다.

“도서관은 양질의 자료가 얼마나 잘 비치되어 있는가, 어떤 구성원들이 이용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 도와주는 자원 활동가들과 평생교육센터에서 지원오시는 독서지도자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35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사서는 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도 보람을 느껴서 상호간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변은 아파트촌인데다 걸어서 10분 이내의 지역에 초등학교만도 4개가 있다. 어린이도서관 입지조건으로서는 최적의 장소. 최 관장을 비롯한 부평 기적의도서관을 이끄는 이들은 생일잔치 후 본격적으로 올해의 운영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가고 있다. 어린이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에 매진할 계획이다. 양질의 도서자료 구비는 물론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이용객 문화에 맞춰 애정으로 성장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